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 20.(화) 10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인 SNS 계정에 게재된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로 시작되는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 질의합니다.

□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유 시장께서는 송도 청사의 이용 불편에 대한 700만 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책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700만 재외동포에게 사과하고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 여전히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천시와 우리청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동포들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3. 재외동포청 송도 청사 직원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의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왜곡하고 인천시민을 선동한 데 대해 이를 정정하시겠습니까?
4. 재외동포청의 송도 부영타워 입주를 추진하셨던 당사자로서 현 청사 건물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5. 앞서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해 제시한 4가지 대책 마련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박병규	(032-585-3107)
		담당자	사무관	박한울	(032-585-3246)

